

코트라, 온·오프 융합전시로 CIS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러시아 수출 막혀 수출기업 타격
‘알마티 O2O 한국상품전’ 개최
카자흐스탄 수출, 98% 급증



2022 알마티 O2O 한국상품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왼쪽부터) 에스마하노바 엘미라 바이어 대표 에이 코스메틱스(A Cosmetics) 대표, 오상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알마티 지사장, 박내천 주말마티 대한민국 총영사, 이정훈 KOTRA CIS지역 본부장, 유리 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 송선영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지사장, 안드레이 신 바이어 대표 신라인(Shin Line) 회장, 김상윤 삼성 전자 카자흐스탄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KOTRA

올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KOTRA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반면, 1년 사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CIS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카자흐스탄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알마티 O2O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핵심

파트너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98% 증가하며 CIS

시장 내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KOTRA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O2O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CIS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105개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벌인다. KOTRA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부스 참가비도 전액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홍보관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관계자 등 전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 나아가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한 카자흐스탄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사투(SATU)와 협업하고, KOTRA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한국상품관을 운영하며 전시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한다.

22일부터는 CIS 지역의 모든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100개사와 참가기업 간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3주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외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기술 자문 서비스 도입... IP금융 활성화 한국전력, 중소기업 50곳에 기술 무상 양도

중소 기술 경쟁력 제고 위해
지식재산 금융사업과 연계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사업과 연계된 기술 자문 평가사업 ‘IP+메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기술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IP분석·출원 자문 등 IP전략에 대한 기술 자문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IP금융까지 후속으로 지원하는 IP경쟁력 육성 프로그램이다.

기존 IP 권리 보강 또는 신규 아이디어 특허출원 등 IP 기술 자문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전략 기술 자문 평가서비스(특허출원 자문 포함) ▲대면 기술 자문 서비스 ▲후속 특허에 대한 IP금융지원 등 IP 전주기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IP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IP전략 기술 자문을 통해 발굴한 우수 IP에 대해 창업·사업화·스케일업·기술 이전 등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에 따라 ‘IP자문→출원→등록→금융지원’에 이르는 IP선순환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IP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IP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IP까지 창출·지원하는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발전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에너지 분야 등 보유 기술

한국전력이 보유한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분야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에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열어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이다.

한전은 올해 처음 기술나눔에 참여했다. 지난 6월 211건의 기술을 개방해 기술 설명회와 수요 발굴 및 선정 절차를 거쳤다. 최종 50개 중소기업에 총 79건의 기술을 이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수혜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민병주 KIAT 원장(왼쪽부터), 한국전력 김숙철 본부장,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21일 기술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지 않은 한전의 기술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목록을 공개해 올해 연말까지 상시 이전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와 KIAT, 한전은 기술나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기술소-가스안전소 고품질 수소 위해 손잡았다

수소충전소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품질향상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 수소충전소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동 품질관리 ▲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 유통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사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및 품질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내 유통수소의 품질을 향상해 고품질 수소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오른쪽)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중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와함께 양 기관은 국내 최초 중소형 메탄 개질 수소 생산기지인 ‘평택 수소생산기지’의 빈틈없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수소품질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주엑스포대공원 울산 관광객 유치 ‘총력’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울산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21일 밝혔다.

공원 측은 매달 1회 이상 울산 지역 호텔과 관광 관련 업체 등을 방문해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자원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원 측은 이달 중 울산 S호텔, 울산시 전담 여행사 중 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울산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류희립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울산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내년 장애인 고용 예산 8357억... 9.1%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도 확대

내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이 8357억원으로 올해보다 9.1%(694억원) 증액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도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예산안 규모는 올해(7663억원)보다 694억원 많은 8357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도 2977억원

으로 올해보다 353억원(13.5%)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2만7000명 늘어난다.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도 641억원으로 110억원(20.7%) 늘렸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6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올해 39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예산증액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탈북 어민 복송’ 김연철 前 통일 장관 재소환
▲ 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사진 뉴스스

▲ ‘노인 70%에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대상 넓힐까 금액 올릴까
▲ 포항서 길고양이 10마리 학대·살해한 30대, 징역 2년6개월



▲ “살생을 멈춰라” 조계종 사노위, 미얀마 군부 아동 학살 규탄 /사진 뉴스스
▲ 오미크론 막는 개량백신 접종 시작한다...내달 11일부터